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7년 3월 12일 (제889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나의 소원

『네 소원(所願)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께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大韓獨立)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自主獨立)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同胞)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내 과거의 칠십 평생을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達)하려고 살 것이다. 독립이 없는 백성으로 칠십 평생에 설움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 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이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였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微賤)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이 글은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라는 글의 일부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이 나라의 평화통일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전쟁만은 안 됩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평화통일입니다.” 라고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전쟁은 안 됩니다. 아름다운 이 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게 평화통일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대답할 것이다. 나 이초석의 소원은 이것이다. 국가 없는 백성은 국가 있는 개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기에, 전쟁은 모든 희망의 종착역임을 알기에 그렇다. 나는 내 사무실에 걸려 있던 ‘세계교구’ 라는 글귀 대신에 시청 앞에서 했던 평화통일 기도성회 사진을 걸었다. 세계교구도 이 나라에 평화통일이 도래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3월 27일부터 춘계산상집회를 열고, 또 5월 3일 서울시청광장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성회를 개최한다. 기도하기 위해서다. 이를 두고도 여러분이 기도해주길 바라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음식점은 음식 맛이 좋아야 사람이 몰린다

지난 2월 28일, 강진예수중심교회가 총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성전 이전예배를 드렸다. 목사님은 강진예수중심교회 담임 윤택함 목사에게 아비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가르치셨다. “윤택함 목사야, 성전을 이전했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란다. 간판을 새로 걸었다고 신장개업이 아니야. 속이 바뀌어야 해. 음식점은 뭐라 해도 맛이 좋아야 하는 거다. 양복점은 옷이 잘 나와야 하고, 정비소는 차를 잘 고쳐야 하는 거란다. 네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고객은 맛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야. 맛이 없는데 누가 내 돈 내면서 그 집

않을 뿐더러 유쾌하지도 않지. 그런데 주인이 바뀌면서 서빙하는 분들의 옷차림이 아주 산뜻해졌단다. 그러니까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단다(마 4:4). 교회는 말씀 장사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으니 당연히 환경이 좋아야 한단다. 항상 깨끗하고 청결해야 한다는 거야.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단다. 교회 입구에서 안내하는 분들부터 깨끗한 옷차림으로 환하게 웃어주면 교회 이미지가 얼마나 좋겠니? 또한 서비스가 좋아야 한다. 아무리 음식 맛이 좋아도 서비스가 엉망이면 고객들은 등을 돌리게 된다. 목사와

고 육즙이 가득한 것처럼, 목사는 부드럽고 사랑이 가득해야 한다. 괜한 권위의를 가지고 명령이나 하고, 단에서 호통이나 친다면 되겠니? 어린 아이에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으로 대해야지. 또한 내 자식보다, 내 아내보다, 내 부모보다 성도들을 사랑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란다. 손님이 실수든 고의든 유리창을 깬 때 경찰을 부르는 주인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안 다치셨어요?’ 하는 주인이 있지. 어느 쪽이 깊은 감동을 받을까 잘 생각해봐라. 목사에게는 신앙의 향기, 지적 향기가 풍겨 나와야 하는 거야. 그러므로 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또한 흔적인 지식도



강진예수중심교회 입당예배(2017년 2월 28일)

에 가겠니? 옷이 엉망으로 나오는데 누가 그 양복점을 가고, 차를 제대로 못 고치는데 누가 그 정비소에 가겠어? 목사가 설교를 못하는데, 능력이 없는데 누가 그 목사를 찾아가고 그 교회에 가겠니? 한 집 걸러 교회인데 말이다. 안 오는 손님을 탓할 게 아니라 그런 나를 탓해야 한단다. 음식점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 음식은 눈으로도 먹는 거야. 환경이 깨끗하면 맛도 한결 좋게 느껴지지. 내가 자주 가는 순대국집이 있단다. 그 집 순대국이 참 맛있어서 손님이 오면 나는 그곳에 자주 가지.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항상 검정색 비닐로 된 긴 앞치마를 입고 있단다. 일하기는 편하겠지. 그런데 어떨 때는 거기서 물이 줄 줄 흐를 때도 있으니 미관상 좋아 보이지

고 어른들께 반말하지 말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려는 자세일 때 성도들이 몰려오지. 내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개척 시절에 동네 아이들 코를 다 닦아주고, 머리에 이 잡아주고 다녔다고 하더라. 또 복덕방에 계시는 노인들께 먹을 것을 들고 가서 인사를 하고 그랬더니 그게 입소문이 나서 오늘의 대형교회의 초석이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다. 소문은 그렇게 무서운 거란다. 그러나 소문을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강진교회 목사님은 사랑이 많대, 정직하대. 그 교회 성도들은 친절하대.’ 이런 소문이 나면 교회가 절로 부흥되지 않겠니? 간접자본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거든. 윤택함 목사야, 교회는 목사 맛이야. 목사가 맛있어야 돼. 맛있는 고기는 부드럽

함양해야 하고, 인격관리, 언어관리에 힘써야 한다. 밑반찬이 맛있어야 주요리가 맛있는 거란다. 오늘 내가 너에게 많은 조언을 해줬다. 그러나 마태복음 21장의 큰 아들처럼 내 앞에서는 ‘예, 하겠습니다.’ 하고는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둘째 아들처럼 깨닫고 행동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어디 이것이 목회에만 적용되는 말씀일까. 무엇을 하든 이런 정신으로 한다면 성공은 따 놓은 당상이다. 강진예수중심교회의 윤택함 목사와 성도들이 오늘의 말씀을 삼비에 새겨 행동으로 옮길 때 부흥과 성장이 따라올 것이라 믿는다. 강진예수중심교회의 부흥을 기도한다. 기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춘계산상집회

3월 27(월)~ 30일(목), 장성예수중심기도원
호텔예약: 3월 21일(화) 오전 10시 홈페이지 예약(www.jcc.tv)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10:32~42)

형통하려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시인하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은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것은 누구나 아는 우리나라 애국가입니다. 이 애국가는 작사가가 미상인 노랫말에 안익태 선생님이 곡을 붙여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애국가가 기도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도 이렇게 하나님을 시인한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민14:28). 그러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 애국가를 부르는 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더욱 부강케 하실 것일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감히 누가 이 나라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형통하려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일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마10:32~33).

대접받기 원하면 먼저 대접하라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기업이며, 백세에 얻은 귀하디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아내에게는 일체 함구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집을 나서 사흘 길을 갑니다. 자신과 싸우면서 갔겠지요.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재산 다 내놓는 거야 대개 하겠지요. 명예도 버릴 수 있지요. 그러나 자식을 어떻게 제물로 드립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겉으로 고심하는 내색 한 번 안 하고 사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모리아 산에 이르렀을 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걱정 마.”(창22:8).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을 미리 시인했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당연히 들으셨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인한 대로 제물로 쓸 수양을 수풀에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하나님을 먼저 시인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마주했을 때,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왕상 18:36).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불을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없애서 엘리야가 시인한 대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입증 하셨습니다.



윗도 그랬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할 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같고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삼상17:46~47) 라고 시인했습니다. 당연히 다윗이 시인한 대로 골리앗은 다윗의 물뱃물에 죽습니다. 또한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 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시23:1~2) 라고 시인합니다.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그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고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룻1:16) 라고 시인한 이방 여인 룻.

그랬더니 하나님이 룻의 말을 들으시고 그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사 그에게 보아스라는 좋은 남편을 주셨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죄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은 이렇게 시인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단3:17).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하나님의 피신 팔이 그런 그들을 구원함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오라비를 잃은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도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주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오라비가 죽었다고 예수님께 고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자 두 자매는 “주여 그러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후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시인하게 하신 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상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어떠한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10:9~10). 예수를 주라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첫 부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고 시인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시인할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 삶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몇 해 전에 우리 어머니가 암에 걸렸을 때, 저는 우리 집안에 경사가 났다고 단에서 말했습니다. 제 말에 다들 의아해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어머니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지 않는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인했더니 하나님은 어머니를 완치시켜 주셨고, 정말 이 일로 인해 우리 어머니의 믿음이 부쩍 성장했으며, 의사인 조카들이 하나님을 모셔 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로 비록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시인해야 합니다. 여호와수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두고 ‘여호와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민14:9)고 시인한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믿음 위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업에, 가정에, 교회에,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시인하는 일이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더 좋은 길로, 협력하여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만사형통하길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시인하십시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거룩한 꼭두각시

신앙은 어디까지나 내면의 사실이다. 따라서 신앙의 사실증명이란 사람의 외양을 보고 할 수 있는 노릇이 아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오직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알 수 있을 뿐이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니라(고후 13:5). 신앙이 내면적 사실이라 할 때, 그것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여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위에 자기의 삶 전체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반에서 성장한 노련한 어부였다. 물때만 봐도 고기가 잡힐 것인지 안 잡힐 것인지 알고 있을 그가 밤새도록 고기잡이에 실패했다는 것은 얼른 납득이 안 간다. 베드로 자신도 매우 의아하게 여겼을지 모른다. 그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군소리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 만약 베드로가 어부도 아닌 웬 낮은 인물의 명령을 거부했다면 아마도 그는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어부로서의 경력과 체험에 입각한 신념을 단호히 꺾어버리고 말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눅5:5).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잡힌 고기가 너

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어, 다른 배에 있는 동료어부들이 합세하여 그물을 올리고 본즉 두 배 모두 꽉 찼던 것이다. 이것을 본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며 자기의 죄인인 것을 고백한다. 베드로는 거기서 물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자기의 신념을 포기하고 예수의 말씀에 따르더니 그 순종에서 기이한 능력이 나타나자 그는 즉시 자의식(죄의 자각)에 빠져든 것이다. 베드로의 순종과 죄인의 자각에 이르는 이 일련의 장면은 참으로 위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갈릴리 호숫가의 한 미천한 어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을 때, 그리스도의 수사도 베드로라는 위인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신앙이다. 오직 예수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의 명령에 준행하여 주님께서 하라 하실 때 하고, 하지 말라 하실 때 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우리는 다만 주님이 시키는 대로 몸을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얼마나 놀라운 꼭두각시인가? 그 얼마나 영광스런 심부름꾼인가? 신앙의 본질을 타락시키지 말고 참된 내면적 신앙에 도달하자.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 신앙논객 ::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개그맨으로 데뷔했지만 큰 인기를 얻지 못한 채 1년 반 만에 군대에 갔고, 군 생활 내내 자신의 실패를 곱씹고 제대한 그는, 절치부심(切齒腐心) 끝에 TV 드라마에서 개성 있는 조연을 맡아 배우로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인기도 잠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그는 연기 내공을 쌓기 위해 연극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한 뮤지컬 제작사에 캐스팅된 그는 그 때부터 뮤지컬 배우를 자신이 뼈를 묻을 직업으로 여기고 필사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이것은 뮤지컬 배우로 전향한지 12년 만에 남우주연상만 6개를 수상하였고 매 공연마다 매진 행렬을 이루기로 유명한, 명실 공히 대한민국의 대표 뮤지컬 배우로 자리매김한 정성화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B급 개그맨’으로 인식되었던 그가 엄청난 티켓 파워와 실력을 겸비한 최고의 뮤지컬 배우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들 노력하지만 전 두 배로 했어요. 내가 무대에 섰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놀라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출퇴근 시간을 줄이려고

연습실 옆에 집을 얻고, 오전 10시에 오려면 8시 30분부터 가서 연습했어요. 4평짜리 연습실에 녹음 시설 갖춰놓고 공연 전에 대사나 노래 등을 미리 녹음해서 틀어놓고 시뮬레이션도 부지런히 했어요. 잘못된 발성이 몸에 익으면 바꾸기 힘들다는 생각에 영국까지 넘어가서 한 달간 발성 공부를 하고 거기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오기도 했죠. 목소리를 내는 레슨은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런 그의 노력에 관객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것을 찾기 위해 문을 두드렸으며, 마침내 그것을 찾았을 때는 남들보다 배는 더 노력했기 때문에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으니까요. 제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얼마나 뜨거운 열정과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문득 최근에 다시 회자되고 있는 드라마 명대사 한 마디가 생각납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가 많이 어지럽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들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력의 양대 기둥인 정치와 경제의 무기력 현상은 끝을 모르게 떨어지고 있고, 국민은 촛불과 태극기를 들고 대립의 구도를 형성했다. 국제정세는 연일 주변 강대국들의 강경대립으로 이 나라를 긴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현 상황에 한탄하고, 미래에 비관만 할 때는 지나야한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때이다. 교회가 가는 방향이 곧 국가가 가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장 백범 김구 선생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김구 선생은 “강한 나라는 성서위에 세워져야 한다. 경찰서 열 개보다 교회를 하나 더 세우는 게 낫다.” 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랐다. 이러한 신앙의 선천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만세가 되었던 것이다. 스코틀랜드에는 존 낙스라는 기도의 사람이 있었기에 나라가 지켜질 수 있었고,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이 나라와 백성을 구하여 달라고 목베어 기도했다고 한다. 우리 목사님 또한 오직 국가와 민족의 안녕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5월 3일 서울시청광장에서 다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성회를 선언하셨다. 진정한 애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시는 것이다. 예레미야, 느헤미야가 그랬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작정하고 전 유대인과 더불어 금식했을 때 민족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듯,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에 평화통일과 번영이 도래함을 알자.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 편지 ::

들어주소서, 받아주소서!



할 텔 루아! 사랑하는 총회장 목사님. 저는입고 있는것으로, 또 하루 먹을 것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제천예수중심교회 예수만 목사입니다.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호호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좋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오직 천국 열쇠 하나 가지고 반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총회장 목사님께서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제3막의 인생을 사신다는 말씀을 듣고는 '나도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나도 전쟁과 무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목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뭔가 이 일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름다운 이 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목사님의 기도에 저도 동참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다 저의 전 재산인

500만원을 5월 3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성회에 광고비로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 달라고 기도하며 바칩니다. 항상 우리 교회와 교단보다 조국을 생각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을 본받아 저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기보다 조국을 먼저 생각하기로 하여 적으나마 이 물질을 바칩니다.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전부인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드린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엘리야가 과부에게 축복한 것처럼 저와 제천교회를 축복해주시고, 또 아곱이 요셉을 향하여 엄청난 축복기도를 유언으로 해준 것처럼 총회장 목사님, 이 종을 위하여 기도해주십시오. 전대와 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주십시오. 총회장 목사님과 우리 교단의 성도들이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이 땅에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이 종 또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 날의 영광을 바라다보며, 목사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제천예수중심교회 예수만 목사

억지로 진 십자가

중학생 때 들었던 주일 설교로 기억합니다. 당시 큰 은혜를 받아서 십 수 년이 지난 지금도 이따금씩 그 말씀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가 시골에서 올라와 예루살렘을 지나가는데 마침 그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던 그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쳐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자 로마 병사들은 구경꾼 중 한명이었던 그를 끌어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우고 골고다로 가게 하지요. 구레네 시몬이 자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로마 병사들에게 떠밀려 십자가를 지었던 겁니다. 사형 도구였던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무겁고, 저주 같았을까요.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훗날 그의 가정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로마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할 때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

라고 하지요. 여기서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며,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와 다름없다고 한 여인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 가정이 주님께 크게 인정을 받고 쓰임 받게 된 것을 짐작해볼 수 있지요. 때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억지로 무언가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기꺼이가 아닌 억지로 하게 된 그 일에도 주님은 축복으로 되돌려주신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서 구레네 시몬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은혜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입술은 거칠고 생활력이 없어서 아버지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어머니가 짊어져야 했지요. 물질적으로 힘든 일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모두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은혜와 엄마의 희생으로 가능했지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제 대답은 언제나 망설임 없이 우리 엄마입니다. 반대로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에 있는 응어리를 쉽사리 풀 수 없었지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버린 아버지를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아버지 때문에 고생했던 것들이 생각나 미운 마음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엄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모든 허물을 품었지만 전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고, 왜 그래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주님이 기뻐하실 그 마음과 제 아버지를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마음으로 알게 하시더라고요. 한참을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였습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지진 못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뭉시 기쁘시게 할 기회가 생겼지요. 참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그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 시작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매게 되었을지라도 끝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쁨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신은혜

dopal0203@naver.com

Good News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프랑스 영화 ‘로베로 장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를 침략하여 점령하고 있는 나치 독일에 저항하여 싸우던 레지스탕스들이 처형을 당할 때, 억울하게 잡혀온 한 사람이 자신의 무죄함을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정말로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레지스탕스 한 사람이 그에

게 조소를 보내며 소아불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5년이 흘렀고, 수많은 프랑스인들이 피를 흘렸으며 도시들은 다 파괴되었소. 그런데도 당신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당신이 죽어야 할 죄라는 것을 모르시오?”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성경에는 근원적인 죄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예수)를 믿지 아니함입니다”(요 16:9).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

려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기쁨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전당, 불신지옥”, 망설임 이유가 없고 지체할 시간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복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교단소식 ::

2017 JC 아카데미 개강



JC아카데미 (2017. 3. 3 일부제권선출)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맞춰 2017 JC 아카데미가 방학을 마치고 개강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특별히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한 20살 형제자매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러기 때문인지 어느 때보다 활기찬 세미나 현상이었다.

이시대 목사님께서서는 지난 학기에 이어 마태복음 강해를 이어가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공관복음이 갖는 의미와 요한복음의 다른 시점을 한 번 더 정리해주시고, 마태복음을 마친 후에 요한복음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앞으로의 세미나 커리큘럼도 말씀해주셨다. 이날 강의가 갖는 의미는 상당히 컸는데, 왜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1주일 전, 중요하게 말씀하신 3가지 중의 1가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겉과 속이 다른 우리들을 꾸짖는 가르침이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이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마23:25~26).

2017년 새해, JC 아카데미 첫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23장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본받지 말고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이었다. 이시대 목사님께서서는 엄중하게 겉모습만 번지르르하며 타성에 젖어 속이 썩을 대로 썩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첫사랑을 잃은 자, 탐욕으로 가득한 바리새인화 되지 말라고 당부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 일에만 열심을 갖는 자가

있다면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셨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마23:27~28).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모두 율법을 지키는 리더들이자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었다. 우리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외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 영부터 깨끗해야 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여성이 자기 집은 돼지우리처럼 더럽히고 있다면 어느 남성이 그 여성을 좋아하겠는가? 우리 예수중심교회 젊은이들은 항상 속과 겉이 모두 청결한 자가 되도록 합시다!

기자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마음의 힘 키우기!

옛말에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 조금만 섭섭해도 받은 은혜와 사랑까지 망각한 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를 선하게 하거나, 악하게 만드는 것, 행복하거나 슬프게 만드는 것, 다 나의 미약한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 신체적 약점들은 내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혹 해결되지 않더라도 극복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낮은 자존감, 열등감, 피해의식과 같은 마음의 장애들은 우리의 잠재력과 능력을 제한해버립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은 바로 내 마음에서 나오는데도 말입니다. 그때마다 신속하게 마음의 장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몸에 힘이 있듯이 마음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받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믿음의 긍정적인 좋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마음의 힘이 내속에서 솟아오르거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입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렘29:11).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 더 하나님의 형상과 닮게 하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을 다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연단’이라 부르지만 하나님은 ‘은혜’라 부릅니다. 사탄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세상의 안목과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넣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유혹’이라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시작도 끝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수1:9).

